

UAE에 신·재생 에너지 사절단 파견

OCI 포함 27개 관련기업 참여 ... 태양광·풍력 연구개발 협력 논의

지식경제부는 UAE(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따른 경제협력의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수도 아부다비로 대규모 민관 사절단을 보낸다.

1월16-20일 5일간 아부다비를 방문하는 사절단은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을 단장으로 현대중공업, OCI,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27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와 8개 지원기관 관계자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UAE 정부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사업과 UAE 정부가 추진하는 아부다비 인근의 무(無) 탄소 도시 <마스다르 시티>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학 차관은 1월17일 마스다르 시티에 사무국이 있는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RENA) 3차 준비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해 2010년 IRENA 아·태지역 정책자문 워크숍과 2011년 이후 IRENA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18일에는 아부다비 왕세자가 후원하는 제3회 세계 미래에너지정상회의(WFES)에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19일에는 양국 조선(조선협회·STX조선해양)과 반도체(반도체산업협회) 분야의 산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15>